

여러분께,

설 명절에 쉬시는데 방해를 드려 미안합니다.

1) 안기현선생님 작업하신 레이아웃을 발전시켜보죠. 김승범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선 다가구/다세대는 전면 사각유리방에 넣고, 테트리스 하우스를 정반대 방향에 두는 방안이 어떨까 합니다.  $36 \times 2 = 72$ 개의 모형이 다 들어가면 꼭 차는 느낌과 함께 방의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추후에 만들 붉은 부분을 달아맨 판 위에 뿌려 놓으면). 사각유리방과 반대편에는 모형 옆에 천장에서 매다는 방식으로 사진, 다이어그램, 도면, 간단한 텍스트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크기와 형식은 다가구/다세대는 정이삭, 테트리스 하우스는 안기현 선생님이 결정하시되, 두 분이 조율하시죠.

2) 정다은씨와 잠시 상의했는데, 각 건물의 도면, 다이어그램, 개요를 분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델 하단에 복잡하고 큰 (50x50) 도면이 들어가면 72개 모형의 공간 장악력 (관객의 눈높이 아래로 펼쳐지는) 이 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사진은 모형 아래로, 4개의 다이어그램은 천장에 매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길게 늘어뜨린 병풍 각 면에 18개 (테트리스 하우스제외)에 해당하는 다이어그램 (총  $17 \times 4 = 68$ 개) 이 이어지는 안입니다. 크기와 높이를 어느 정도로 할지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듯 합니다. (다음주 이우조 학생에게 시뮬레이션 부탁할 생각입니다). 전체 개요와 설명은 A4 크기 (각 건물당) 에 출력하여 별도의 테이블에 배치하는 안을 정다은씨가 제시했습니다.

3) 우측 곡면은 김승범 선생님이 내용과 레이아웃을 만들어주시죠. 용적률 게임이 한국의 도시(서울)에서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인구밀도, 용적률 등의 물리적 지표, 땅값 등의 정보가 쉽고 명료하게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길을 따라 펼쳐지는 집들과 용적률 등의 그림은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한양대 명준일 학생이 작업을 시작했으니 중간결과를 보면서 논의하죠. (정연두 작가가 다른 차원이지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이 주인공이고, 뒤의 내용은 조연이 아닌가 합니다. 현재 시뮬레이션에는 이 부분이 조연처럼 보입니다. 우측은 (곡면 혹은 평면) 우리 전시의 경제, 인구, 도시적 배경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4) 좌측 ㄱ, ㄴ 으로 꺾인 벽면의 레이아웃은 신은기 선생님이 발전시켜 주시죠. 36개 도시맥락을 어떤 분위기로, 어떤 톤으로, 어떤 정보를 주고자 하는지 관객이 느낄 수 있도록 구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슈퍼블록, 용도지역지구제의 공존과 전이, 이중적인 도시조직을 보여주기 위한 강남의 모형을 만드는 것은 결정이 필요할 듯 한데..... 저도 좀 생각해보겠습니다. 보여주는

내용이 모형이 맞는지 악소노 등 도면이 맞는지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전달할 내용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정해져야 할 듯 합니다.

5) 사각형 방은 정이삭소장님이 두 분 작가와 협의하면서 발전시키고 있고, 정연두 작가의 모니터 위치는 안기현선생님의 시뮬레이션대로 할지 사각형방 입구 왼쪽 벽에 할지 생각해 보죠.

6) 반원형의 인트로 룸에 무엇이 들어갈지는 제가 구상을 하고 레이아웃을 상의 드리겠습니다.

7) 외부공간의 키오스크는 정이삭소장님이 최종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8) 조명설계를 정이삭 소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9) 안기현 선생님이 다음 주에 나오시기 어려우시니, 정다운씨 부군 김빈소장에게 테이블 디자인을 부탁하려고 하는데 다음주에 결정하시죠.

10) 뒤늦게 회의에 몇번 참석한 정상희씨가 기금조성용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상희가 기금조성에 도와준다면 역할을 맡겨 볼까 합니다.

11) 저는 2월 9일 오후에 한국을 방문한 Richard Enos를 스튜디오로 불러 전시장에 들어가는 텍스트 전반을 상의하려고 합니다.

12) 2월 11일 (목) 만나서 일을 아주 짧은 시간에 점검하고 각자 작업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월 18일 (목) 박명진위원장님과의 점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잠시나마 넉넉한 설 가족 분들과 보내시고 재충전해서 뵙죠. 고맙고 미안합니다^^

김성홍드림